

한라시론



오윤정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기본사회'라는 철학을 강조하며 주거를 교육·의료·돌봄과 함께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 생활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시장경제적 성격이 강했던 주거영역을 공공에서 책임지는 권리적 차원에서 인식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는 목소리가 증가하면서 중앙정부는 지난 몇 년간 축소됐던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 재확대, 지역 기반 주거복지 강화, 사회주택 활성화, 돌봄주거 모델 개발 등의 주거정책 방향

지역사회돌봄과 주거정책의 연계

을 설정하고 있다.

주거는 돌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올해 3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주거와 돌봄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사회돌봄은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가능하면 자신의 집에서 지속 가능한 독립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즉, 시설보호가 아니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그야말로 주거권이 극 대화되는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돌봄을 주고받는 공간으로서의 주거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돌봄의 전달체계 구축시 주거영역에 대한 깊은 개입과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제주가치 돌봄에서 주거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방역·소독·집수리·대청소 서

비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돌봄의 철학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의 적절성(안정성, 무장애 설계, 돌봄서비스 접근성 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사회돌봄에서 주거정책은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돌봄과 주거정책을 연계하는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지역사회돌봄 안에서 주거권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사회돌봄 체계 마련을 위해 재택의료기관 확충을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주거영역은 서비스 제공 차원으로 머물고 있다. 지역사회돌봄이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 돌봄과 주거영역을 연계하는 노력,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사회는 저출생의 지속,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급속한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현재를 기준으로 설계하는 정책이 아닌,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한 단계 앞선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게 됐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다양한 영역의 융복합적 접근과 상상력이 발휘될 때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제주도가 지역사회돌봄을 위해 '제주가치돌봄'과 '제주형 건강주치의'를 선도적으로 추진한 것처럼 돌봄과 주거정책 연계를 위한 융복합적 거버넌스 구축, 정기적인 논의 구조 마련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

열린마당

한 번의 확인이 보이스피싱을 멈춥니다



이지환

제주동부경찰서 아라파출소 경장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실수로 링크를 눌렸다.",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고 해서 믿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특별한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순간에서 시작된다. 범죄자들은 공포와 조급함을 이용해 판단의 시간을 빼앗는다.

전화나 문자로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일단 끊고 확인해야 한다. 겹찰·경찰·금융기관은 전화로 계좌 이체, 현금 전달, 앱 설치

를 요구하지 않는다. 전화를 끊고 공식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하는 것 만으로도 대부분의 피해는 막을 수 있다.

또한 대출을 미끼로 한 접근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저금리로 갈아타라"며 링크 클릭이나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금융 상담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 확인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순간을 노리지만, 우리는 확인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한 번의 확인이 우리의 재산과 일상을 지켜준다.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 자녀 등을 사칭한 문자 혹은 전화를 받거나 링크(URL)를 받을 때에는 우선

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 진흥원(118)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당부드린다. 빠른 상담과 신고가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갈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례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액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평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8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 약백도라지연구소

묘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 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토박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사설

최강 한파·대설 내습…선제적 대응이 최선

울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내습했다. 대설 예비특보도 발효돼 시설물 관리 등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제주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한파의 강도는 22일 절정에 달하고 이후에도 장기간 강 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절기상 대한(大寒)인 20일 제주지역 체감온도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가며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다. 제주 대부분 지역에는 22일 오전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풍특보도 발효돼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태세 강화에 나섰다. 제설제 사전 비축과 제설장비 전진 배치를 완료하고 도로 열선과 자동염수분사장치 등을 적기

에 가동해 도로 결빙과 교통불편을 최소화한다. 읍면동별로는 지역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주요 이면도로와 결빙 취약구간에 대한 제설작업과 안전에찰을 강화도록 했다. 또 강풍과 너울성파도에 대비해 해안도로와 방파제, 항·포구를 대상으로 간판 등 시설물과 어선 결박 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파·대설 시에는 행정당국의 사전 대응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안전수칙 준수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외출을 되도록 자제하고 보온·동파·교통·시설물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운전 시 차인·모래주머니를 준비해 서행·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집 앞과 점포 앞의 눈은 스스로 치우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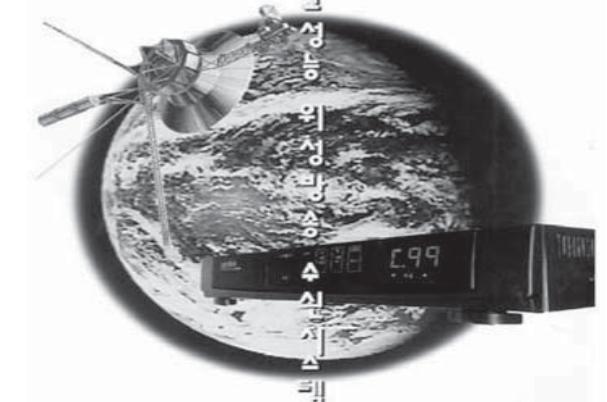
제주 제2공항 여객 수요 예측 적정했나

지난해 제주국제공항 전체 이용객 수가 2952만7994명을 기록했다. 국내선 이용객 2651만3249명, 국제선 301만4745명을 합한 수치다. 국내선 이용객이 3년 연속 감소세인 가운데 국제선 이용객이 전년 대비 23.7% 오르며 그나마 3000만 명에 육박했다. 하지만 연간 이용객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건설 계획 발표 10년을 맞아 도내 언론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제2공항 계획 자체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 단계마다 수요 예측 재조사를 면밀하게 시행하는 한편 그 과정과 결과를 제주도와 공유해 항공 수요에 대한 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제주 사회의 오랜 현안인 제2공항 사업 추진에서 적정한 여객 수요 예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한 항공 수요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제2공항 반대 측에서는 장래 인구 주제 등을 분석해 제주에 새로운 공항을 짓기 위한 여객 수요 예측이 부풀려졌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운·교화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